

동곡농협 로컬푸드 사업 추진 의혹 투성 “사업계획서” 없는 매각·매입 사업 승인

동곡 농협은 본지 단독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된 후,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그 총 투자비(50억~100억 내외)를 감안할 때, 조합 측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총괄 사업 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총회 승인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동곡 농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 없이, 대상 부지의 사전계약(20.01.06) 후 이사회 사업승인(20.01.22)을 받았고, 당시 매입한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사회 승인받기 이전부터 광산구 도시개발과에서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는 기간 중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종금속오염 폐기물 매립)인 로컬푸드용 부지를 매입했다면, 이 문제투성인 부지에 대한 합법적 활용을 위해 어떻게 행정처분의 해결과 토지형질 변경 등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동곡 농협이 수십억이 소요 되는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조합장의 안일함, 이사 및 감사의 업무태만, 조합원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농협에 지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열되어 지역 사회가 열병을 앓고 있다.

또한 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농지매매 승인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의 형식적인 업무 절차와 현장 확인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어, 행정의 무능 또는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동곡 농협이동운 조합장은 지난 보답대회, 이사회, 전·현직 임원 모임 장소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니, 짜깁기했네, 광전매일신문은 다른데 사진을 가져다 짜깁기 보도했

다”라는 등 허위 사실 공표와 폭언 등 망언들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농협 직원들은 기사 내용들을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본 지 보도를 허위사실이라며 문자 등 방송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시키고 있다.

동곡 농협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정보통신 법 위반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누군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사실 왜곡의 고의성을 갖고 상대방이 해당 기사가 진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신뢰를 훼손한 경우 그 기사의 당사자(즉, 특정 인물, 기업 등)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고, 그 평판



이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개성 있는 전파로 그 주장을 다수에게 전파(예: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 등)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형사제재 없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번 특별감사에서, 로컬푸드 사업

계획, 컨설팅 보고서, 부지 매입 후 행정조치 해결 방안, 토지 형질 변경 계획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답답해하는 조합원들의 수많은 의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이재명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 박지원 “DJ가 환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투어’ 일환으로 전남 화순을 찾아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 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을 상대로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이라며 “오늘은 동학 혁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 받는,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꿈꾸는 동학 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1980년 5월에 모든 군·경, 치안 인력이 다 철수한 후 열을 동안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이 없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후보, ‘경청투어’ 전남 화순 찾아 지지 호소
“국가 역량 국민 위해 쓰는 대한민국 만들자”

아무런 절도 사건, 폭력 사건 없이 주먹밥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진정한 공동체를 잠시 느끼지 않았나”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곧 국가인 나라, 국가가 곧 국민인 나라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향해 우리는 지난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 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

이 후보 연설을 들던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이라고 외치자 이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라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두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반드시 만들라”고 했다.

지지 연설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안했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아닌가. 이 후보도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지금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승원 기자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오감동시장에서 한 주민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뉴스1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APEC 2025 KOREA

이 공식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